

## C-21. 상악동 골이식술을 동반한 임프란트 식립 시 골이식재의 높이 변화에 관한 방사선학적 평가

김지선<sup>1\*</sup>, 이서경<sup>1</sup>, 정의원<sup>2</sup>, 김쌍성<sup>2</sup>, 최성오<sup>2</sup>, 조규성<sup>2</sup>, 채중규<sup>2</sup>, 김종관<sup>2</sup>, 방은경<sup>1</sup>

<sup>1</sup>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

<sup>2</sup>연세대학교 치주과학교실, 치주조직 재생 연구소

### 연구배경

가용골이 부족한 상악 구치부의 수복을 위해 상악동 골이식술을 이용하여 임프란트를 식립하는 것은 예지성 있는 술식으로 평가되고 있다. 이때 이식골의 흡수에 대한 안정성은 향후 임프란트 식립 및 식립된 임프란트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.

이 연구의 목적은 외측창 접근법을 이용해서 상악동 골이식술을 시행한 후 식립된 임프란트의 생존율을 알아보고, 방사선 사진을 통해, 골이식재의 높이변화가 장기간 동안 어떠한 양상으로 일어나는 지 평가해보고자 하는 것이다.

### 연구재료 및 방법

1995-2004년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에서 외측창 접근법을 통해 자가골, 동종골, 이종골, 합성골의 혼합 이식재를 사용하여 상악동 골이식술을 시행하였다. 이때, 45명의 환자에게 식립된 100개의 임프란트를 대상으로 누적 생존률 구하고, 골량/임프란트 비율의 변화 양상을 panoramic 방사선 사진을 통해 평가하였다.

### 연구결과

1. 임프란트의 10년간 누적 생존률은 91.0%였다.
2. 골량/임프란트의 전체적인 비율은 5년 평균  $1.34 \pm 0.21$ 이었고,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이었으며, 골이식 직 후와 비교 시 1-2년, 2-3년, 3-4년에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.
3. 골량/임프란트의 비율은 1단계법 임프란트 식립 시 골이식 직 후와 비교하여 1-2년, 3-4년에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고, 2단계법으로 식립 시에는 시기 별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.
4. 골량/임프란트의 비율은 자가골을 포함하거나, 자가골을 포함하지 않은 혼합 이식재를 사용한 군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이었으나 기간 별 유의차는 없었다.

### 결론

상악동 골이식술을 동반한 임프란트 식립은 예지성있는 술식이며, 자가골의 혼합비율을 낮추거나, 자가골을 혼합하지 않는 골이식재는 상악동 내에서 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.